

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저는 지금 이곳에, 매우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던 날 새벽,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을 보고 참담한 마음에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로 인해 한국의 여성인권이 붕괴되고 난민들이 한국 여성들을 성폭행할 것이라는 그 글들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혐오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면 가난한 나라의 이주민이 몰려와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갈 것이라는,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아이를 아파트에서 밀어 떨어뜨릴 것이라는 하는 그런 편견에 근거한 공포와 혐오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회의 경계로 몰아내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 어느 곳, 어떤 사회이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많은 미국인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미국의 사회문제나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를 이유로 미국인들이 모두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미국인 모두의 문제라거나 그것만으로 그 사회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무시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멘의 조혼이나 할례, 명예살인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멘에서 어떠한 이유로 조혼이 급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유니세프의 보고에 의하면 전쟁이후 80%의 가구가 막대한 빛에 시달리고 있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소녀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문제로 인해 강제 결혼에 내몰립니다. 15세 이하 소녀들의 조혼 비율은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것입니다.

2006년 14%이던 15세 이하 조혼 비율은 전쟁이후 45%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예멘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타자화하여 우리의 공포와 혐오를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매우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입니다.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혼자 온 사람도 있고 가족 단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 과정 중에 겪게될 수 있는 일들을 우려해 함께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군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생계의 벼랑 끝에서 탈출해 왔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말입니다.

최근 남북한 평화 국면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이 너무나 편향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혐오는 언제나 공포의 이면입니다. 그리고 편향된 공포는 파시즘의 양분입니다.

정말 예멘인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생존의 길을 찾아 한국에 온 난민들이 안전하게 적응하고 지내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한국에서마저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자리와 터전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일, 종교 근본주의 세력과 결탁한 정치세력과 군부가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도록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한국에 온 예멘 난민 여성과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좀 더 다른 삶을 찾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키우는 것보다,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막연한 공포와 그에 근거한 혐오를 확산시키는 대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바뀌어나가는 일,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